

2020년의 키워드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 전 세계를 뒤흔든 'COVID-19'이다.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잠시 멈춰서야 했고 바뀌놓은 생활이 평범한 일상 생활이 되었다. 올해 4월, 대구사진비엔날레는 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지역문화 예술발전 MOU를 체결하여 작년 2월 대구지역에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될 때 거점병원이었던 대구동산병원 의료진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리고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전시 <히어로즈2020>은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의사회, 골든타임응급환자이송센터, 시민 등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개최되며 대구동산병원 교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녔던 어린이집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혼돈의 상황 속에서 촬영된 사진은 수직, 수평이 올바르지 않거나 초점이 맞지 않다. 이는 관람자에게 상황의 긴박함,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총 73명의 참여 작가들이 보내준 사진들 속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보다 웃는 얼굴이 많다. 지치고 힘들 수 록 서로를 다독거리며 힘을 내보자며 어깨를 두드리고 손바닥을 마주한다. 또한 만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애뜻함과 그리운 마음을 영상통화로 대신하는 의료진의 모습과 전국 각지에서 온 응원의 편지, 지원물품, 자원봉사자 등이 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한 모습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인류애를 발견한다.

인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며 발전해왔으며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시련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는가를 보여준다. <히어로즈2020>은 단순히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전시는 아니다. 개개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질문하게 하는 전시이다. 관객들이 전시를 관람 후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야말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The defining keyword of 2020 was COVID-19, which rattled the entire world. The unexpected arrival of the pandemic put our everyday life on pause, which soon became the norm. In April this year, the Daegu Photo Biennale signed an MOU with the Daegu Metropolitan City and the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and art. Under the MOU, organizers planned an exhibition in recognition of the service and sacrifice of medical workers at Daegu Dongsan Hospital, which was designated as a COVID-19 specialized hospital in February 2020 at the height of the outbreak in the city.

“Heroes 2020”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taken by medical workers, the Daegu Fire Department, the Daegu Medical Association, the Safety & First Aid Service, and citizens. The exhibition venue is the daycare center the staff members at Daegu Dongsan Hospital send their children to, which adds more meaning to this project. The images are often tilted or out of focus, as they were taken in the middle of chaos. This gives them a sense of urgency and realism. However, in these photos taken by 73 everyday artists, there are more smiles than fears. They

exchange high-fives or pat each other on the back after a long day's work. They video call their families, whom they have not seen in some time. Letters of support, donations and volunteers flock to the hospital from across the country. The love for humanity is on display everywhere.

Mankind has evolved through the ongoing battle against viruses. COVID-19 is certainly a great challenge for mankind, but it also demonstrates how we respond to and overcome crises. "Heroes 2020" is more than a simple acknowledgment of the service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t is a wake-up call to how we should live our lives and society should evolve. While I cannot predict how visitors will respond to this exhibition, keeping a positive and hopeful attitude may be exactly what we need in modern-day life.